

서울대 수의과대 질병방역팀을 찾아서

이 병 석 기자

최근 소규모 양돈농가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업양돈농가들조차 살아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 맞물려 국제 사료곡물값의 폭등과 돼지고기 MMA물량이 수입됨으로 설상가상으로 우리 양돈농가들에게 더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럴때일수록 우리 양돈농가들은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양돈농가에서 질병에 의한 피해는 보이지 않는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결과적으로 생산비의 상승요인 중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장에서 어떠한 질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결과가 너무 늦어지는 등 사실상 질병이 발생한 후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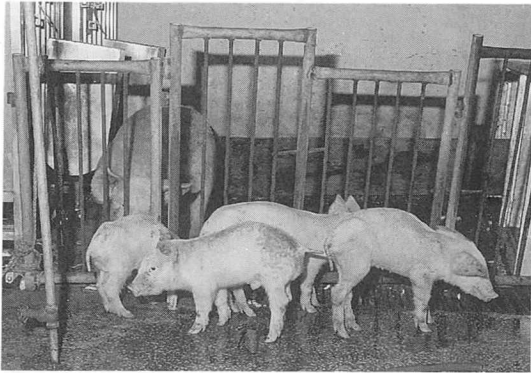
이러한 때 서울대 수의과대학 병리학 실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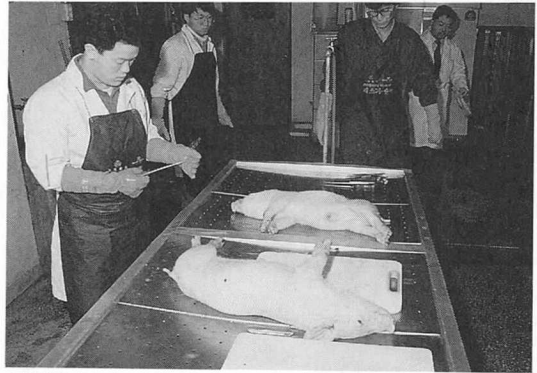
양돈 농가의 편에 서서 의욕적으로 질병 진단과 처방을 해주고 있는 채찬희 교수

(채찬희 교수)에서는 양돈질병방역팀을 구성하여 양돈농가들에게 질병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단을 시작하여 현재(12월 14일) 전국적으로 910두에 이르는 돼지를 진단하였으며, 의뢰한지 2~3일이면 결과와 처방을 농가에 직접 팩스와 전화로 알려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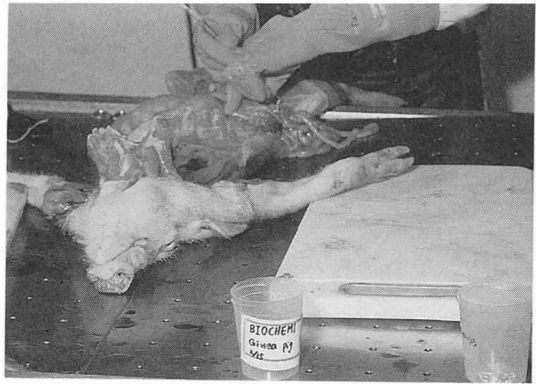
병성 감정을 받기 위한 돼지들



부검을 하기 위해 돼지를 부검대 위에 올려 놓은 모습



혈청검사 하기위한 채혈과정



세균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을 떼어내고 있다

있다. 또한 결과를 빨리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검사하여 당일이나 그 다음날 알려 주는 등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일단 직접 돼지를 가지고 와서 검사의뢰를 하면 실험실에서 곧바로 부검을 시작하여 채혈하고 육안으로 1차적인 증상을 확인한 후 이상있는 부위를 잘라서 분리해낸다.

채취한 혈액은 혈청검사를 통해 여러가지 실험단계를 거쳐 질병을 파악한 후 그 질병에 대한 항체검사를 하며 분리해낸 조직(폐장, 소장 등)은 세균조직검사를 통해서 병원균을 밝혀낸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의뢰한 농가에게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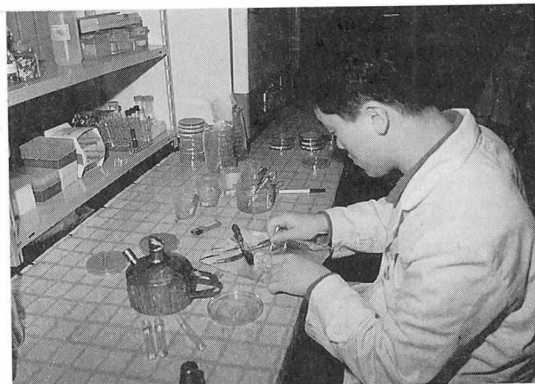
접 전달되는 것이다.

특히 그 질병에 대한 결과를 알려줄 때 그 질병의 병명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농장상황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백신을 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조절해 주며,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약을 투여하고, 투여하는 그 시기와 횟수 등을 조절해 주어 가장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질병에 대한 처방까지도 해주고 있어 이제껏 의뢰해 온 양돈농가들에게 무척 큰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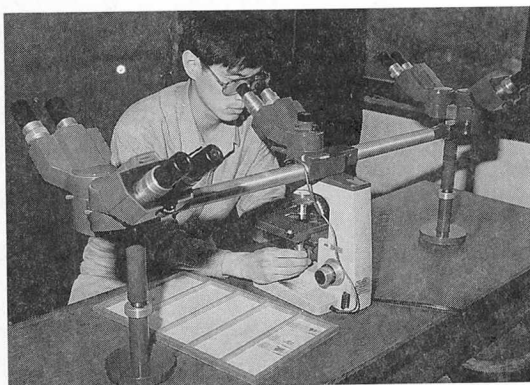
농장에서 의뢰를 하고 싶다면 사전에 전화로



혈청검사를 하는 모습



채취한 장기조직에서 세균을 분리하는 모습



조직은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현미경을 통해 검사를 한다.



질병방역팀의 대학원생들
(좌로부터 안경규, 천두성, 손용성씨)

문의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의뢰서를 작성하고, 병역을 얘기하면 된다.

하지만 실험실 여건상 먼 지역 등에서 단체로 20두 이상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오고, 그 외에는 아무 날이나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마리보다는 두세 마리가 검사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혈청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농장으로 직접 방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농장에서 직접 배큘(Vacuum)주사나 일반 주사기로 혈액을 채취해서 (PRRS검사는 40두 이상, 오제스키검사는 80두 이상이 효과적) 가져오면 되는데 채취한 혈액은

냉장상태로 1주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므로 채취한 후 냉장 보관하다가 시간이 여유있을 때 가져와도 된다고 한다. 정기적인 혈청검사는 질병예방과 농장파악 등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6개월에 1회 정도를 실시해 주면 좋다고 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양돈질병방역팀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검, 병리검사, 세균·Virus검사, 혈청검사 등이 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생돼지를 직접 부검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전국에서 직접 의뢰를 해오므로 전국 질병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채찬희 교수는 농장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감각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한 달에 2~3회 정도는 원하는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해 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양돈농가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아 사양가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적으로 의뢰해 오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채찬희 교수는 어떤 때 보람을 느끼냐는 질문에 농가로부터 치료되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며, 개인적 친분이 쌓여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진단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할려면 여러가지 연구가 지

속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P사료회사, S축산, K양돈협동조합이 90%이상의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면 앞으로의 질병방역은 민간차원에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협회나 법인단체가 적극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특히 대학과 양돈농가 사이에 협회가 중간 역할을 해 주어 양돈농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 한해 서울대 채찬희교수가 이끄는 양돈질병방역팀의 성과는 과히 괄목할 만 하며 국내에서 그 유래가 없을 만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툽 밥 공 급 전 문 업 체

툽밥 이제 걱정 마십시오.

폐사는 툽밥공급 전문회사로서 품질좋은 미송 툽밥을 양돈농가에 신속하게 공급하여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일정보다 2~3일 전에 주문하여 주십시오.

배 산 상 사

주소 : 인천 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30-14

TEL : (032)514-0419 대표 : 정명진